



雇傭面에서 높은效果

閔 玉 仁

<前 京畿大 經營學教授>

1. 政府豫算規模와 食品工業 擔稅

食品工業이 擴大됨에 따라 租稅부담 비중이 그 어느 業種못지 않게 높은 편이다. 製品이 流通過程을 通한 租稅收入이 앞으로 每年 激增될 것을 다른 어느 業種에 대한 것 보다도 高率期待할 수 있을것 같다. 왜냐하면 統計上의 賣出額이 그 展望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76年の 경우만 하더라도 與件이 좋은편이 아니었음에도 不拘하고 國內食料品の 賣出額이 前年보다 49%나 늘어났다. 平均적으로 보아도 賣出高가 1년에 約 50% 增加하면 稅金收入도 50%나 늘어난다는 計算이 나오는 것인데 앞으로 7月 1일부터 實施할 것이라는 附加價值稅制下에서는 훨씬 더많은 稅金增收을 可期할 수 있다.

77年度 政府豫算(一般會計)은 內國稅가 1兆 6,376億원으로서 全體 稅收目標의 61.6%에 該當한데 前年度보다 21.5%가 늘어났다.

한편 關稅는 3,381億원이므로 이는 全體豫

算規模의 12.7%에 相當하고 前年에 比한다면 41.1%의 高率增加이다. 또 防衛稅는 全體豫算規模의 10.5%인 2,793億원인데 前年對比 19.5%의 增加이다.

2. 食品業界서 年間 200億원 부담

위와같은 稅收 豫算規模속에 食料品관계가 얼마나 包含되어 있는지는 알수없으나 지금까지의 年間實績으로는 約 200億원이라고 하므로 萬一 76年度의 경우와 같이 食料品 賣出額이 年間 約 50% 늘어난다고 한다면 77年度의 稅收가 300億원을 上廻할수 있다는 計算이 나온다.

이렇게 稅收의 主要 一翼을 擔當하고 있는 食料品에 대한 認識이 새로워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食品문제가 經濟문제임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社會問題로서의 性格을 同時에 많이 띠고 있는 것은 食生活이 社會問題로서의 基底를 形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77年度 政府豫算의 特徵은 歲出豫算에 있어서 社會開發費와 經濟開發費의 比重이 자리 바뀔을 한데 있다.

즉 從前的 年度豫算에는 經濟開發費에 比해서 社會開發費는 자그맣게 주그리고 앉은 實情이었는데 77년에는 經濟開發費에 上位를 讓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數字的으로 말하자면 社會開發費가 5,633億원 으로서 全體 豫算規模의 21.2%를 차지하였는데 前年度 보다 實로 26.6%의 大幅增額이고 經濟開發費는 5,520億으로서 全體豫算規模의 20.8%에 該當하나 前年度에 比할때 4.1%나 減少된 額數인 것이다.

3. 메이커系만도 從業員 10萬

食品工業의 雇傭力이 큰 點을 數字的으로 살펴보기로 한다면 約 10萬名의 從業員이다. 즉 韓國食品工業協會의 會員인 27個業體는 모두大企業들이고 其他의 製造 加工業者을 合한 數는 約 1萬 9千業體이다.

그리고 5人家族 기준으로 해서 메이커 傘下에 50萬名(75年末 現在製造業의 經濟活動人口는 2,375천名)이란 엄청난 多數國民이 連結되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全國販賣分野의 從事員數는 그數에 짐작조차 가지않을 程度로 많다.

77年度 國際經濟가 試鍊받고 있는 課題는 ① 景氣浮揚揭策의 適正線所在 ② 인플레이션 ③ 失業增大등 3가지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나라 最近 每年 失業率이 계속 低下하여온 나머지 작년에는 3.8%란 극히 낮은 水準에 떨어졌다는 것은 흐뭇한 일이다.

世界全體로 보아서 景氣가 相當히 회복되었는데도 不拘하고 失業率이 낮아지지 않고있

다.

美國의 경우는 昨年 11월에 8.1%란 豫想外의 높은 失業率을 나타냈기 때문에 다음달인 12월부터 微微한 내림勢를 보였다. 그 步調가 다시 逆轉될 것 같다. 우리는 이루어진 低失業率을 固守하기 위해서 安간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4次 5個年 計劃에 依하면 81년에는 就業人口가 75年 보다 約 200萬名이 增加한 14,797千名, 失業率은 4%로 計上되어 있으므로 75년에 4.1%보다 낮고 76년에 比해서는 약간 높아진다.

앞으로 81년까지의 經濟開發 進度에 따라서 目標年度의 失業率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도 있겠으나 76年度보다 0.2%가 높아지는 失業率으로 일단 잡아진 사실을 거울 삼아서 失業率이 世界異例로 낮아졌다는데 放心을 해서는 안될 일이다.

世界景氣가 75年 下半期부터 不況의 바닥을 벗어나기 시작하였는데도 이것이 失業率에 反映되지 않고있는 理由로는 ① 企業體들이 經營合理化를 通해서 「省人力」效果를 上昇시키고 ② 景氣前途에 대한 確信을 갖지 못하여 企業들이 設費投資에 消極的이며 ③ 不景氣가甚한 동안에 就職을 일단 斷念하였던 사람들이 景氣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就職希望者로 陽性化하기도 한다.

4. 雇傭효과 製造業분야에서 第1位

이들이 就業될때 까지는 失業者 數에 加算하게되는 것 등등이 景氣회복 過程에 들어선 後에도 세계 失業率이 줄지않는 大勢의 背景인 것 같다.

한편 우리는 失業問題와 職業技術教育 問題에 深刻하게, 그리고 透視力 있게 대처해야 하

있다.

低率이기는 하나 3.8%의 失業率을 남기고 있으면서 人力의 不足部門이 적지 않다. 機械工業分野등 人力不足으로 「月給을 많이주는 것은 勿論 그밖에 뒷돈까지 주어가면서 同業者의 部下職員을 빼내는 競争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技術教育에 制度上 置重도를 더욱 強化하고 業界의 自重도 아울러 있어야 하지않을까고 여겨진다.

5. 農村畜産에도 雇傭增大

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우리나라 畜産振興에 相當한 熱意를 보여주었다.

즉 1人當 1年間 畜産物需給量이 75년의 15.5kg를 81년에는 38.2%로 引上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한편 4次 5個年 計劃期間중에 ① 쇠고기 494千%, 돼지고기 699千% 등 肉類 1,590%를 生産하고 ② 韓牛飼育頭數를 1,800千頭로 늘려 其中 肉類를 年平均 7.9%, 달걀 8.0%, 牛乳 22.3%를 각각 增加시키게 되어있다. ③ 그런데 肉類의 增産內容 중 年平均 쇠고기 8.7%, 돼지고기 7.2%, 닭고기 7.0%등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畜産規模가 大幅擴大됨에 따라서 食品工業이 雇傭增大에 寄與할바 커질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畜産業에 대해서는 獎勵政策으로 租稅上의 特惠를 주고 있으므로 企業化하는 경우가 急増할 可能性도 있다.

農家에서 農作만으로 所得增大를 피하는 單純한 一邊倒의 思考方式을 버리고 畜産 및 其他 農外所得을 늘리는데 農民의 感覺이 달라져야 할것은 勿論이거니와 政府도 過去보다 더한層 이에 留意하게 될 것같다.

그리고 畜産業에 대하여 財政投融資가 상당히 增資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않다. 75年の 경우를 본다면 畜産業에 대한 財政投融資가 12億 9千 6百萬원인데 前數度の 10億 8千 6百萬원 보다 19.8%가 增加하였다. 農村 水産部門의 總財政投融資가 89.4%나 激増한 것에 比하면 너무 低率增額임을 免할수 없었다.

앞으로 4次 5個年計劃 期間중에는 畜産開發을 위한 財政 投融資面에서의 支援이 커지기를 바라며 그러할 것으로 믿어진다.

先進國의 例를 보더라도 經濟開發(先工業)이 工業近代化에 大體의 成功을 이룩하게 되면 農村經濟開發으로 資本 經營 技術 人力이 都市로부터 相當한 部分 農漁村에 移動하게 된다.

農村 畜産의 段階的인 企業化가 雇傭增大의 機會를 넓혀줄 것은 自然스러운 趨勢이다.

뿐만 아니라 農村의 所得이 增大됨에 따라서 農民의 稅負擔이 앞으로 늘어날 것을 豫見할 수 있다. 벌써 75,76年엔 계속해서 農家戶當所得이 都市勤勞者 世帶當所得水準을 上廻한 것은 都農隔差를 解消시킨 多幸스러운 2年이다.

또 農村에 稅源이 크게 잘아났음을 意識케 하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막은 不正食品 우리 가족 健康增進